낮엔 회사원, 밤엔 조폭

문신 보여주며 885만원어치 술 값 떼먹은 8명 검거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폭력배들이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조폭'으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영업활동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시민과의 접촉과정에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8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술값을 내지 않은 광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권모·김모(30)씨 등 8명을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최모(여·29)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215만원 어치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모두 885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여종업원들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조폭이다"라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와 김씨는 낮에는 각각 토목회사와 보험회사에 다녔으며 밤에는 광주지역 4개 폭력조직 조직원 등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과거 속칭 '관리업소'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일정한 수입원이 고갈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이 지난 10월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조직폭력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된 659명 가운데 22.7%인 148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으로는 용역업이 9%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8.3%), 유흥업(3.3%), 건설업(0.8%), 부동산·사채업(각각 0.5%), 게임장(0.3%)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이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조폭임을 내세울 경우 일반 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폭력 등 전과 12범인 김씨는 보험회사에 취직해 자동차 보험상품을 팔아왔고, 폭력 등 전과 6범인 권씨도 토목회사에 취직해 일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업가 협박 김태촌씨 수사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의 한 사업가를 협박한 혐의로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옛 조직원 등과 함께 지난 4월 대구지역의 한 사업가를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화학교 이사장 영장

성폭행 전 교장 합의금 3000만원 법인서 지원

광주경찰, 이사도 영장

경찰이 인화학교 법인 운영비리와 관련, 이사장 등 임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은 8일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하고, 후원금을 불법 전용한 인화학교 법인 우석의 이사장 강모(67)씨와 이사 정모(51)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께 인화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이 학교 전 교장의 개인합의금 3000만원을 법인에서 지원하고, 지난 2006년 12월께 법인 설립자가 인화학교 후원금으로 기부한 75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이사는 지난해 5~7월 사이 인화학교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성폭행 사건을 단순 탈선행위로 처리하도록 지시해 사건을 은폐하고, 지난 2008년 6월께 가해자인 인화학교 전 교장과 성폭행 피해 학생의 합의과정에서 변호사자격이 없으면서도 합의서를 작성해 수수료 60만원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통장 및 1000만원권 수표 3매, 통장거래내역서, 성폭력 은폐 관련 교무회의록, 법인 감사결과보고서, 피해자 합의서,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세금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공익성과 책무성을 가져야할 임원들이 이를 위반하고, 증거자료가 분명함에도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진행중인 관내 전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보조금, 후원금 사용 등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특별수사팀은 지금까지 모두 40명을 조사해, 1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선거 범죄 공소시효 시작

선거 당일이냐 다음날이냐

목포수협장 선거 금품 제공 사건

1심 '당일' 면소, 2심 '다음날' 유죄

항소심 재판부가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된 연루자들에 대한 시효 기준을 1심 재판부와 달리 판단,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8일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우려고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79)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엇갈린 판단은 공소시효 적용 차이에서 비롯됐다.

공소시효가 '선거일 당일 자정'부터 적용된다면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거일 다음날 자정'부터 라면 시효가 남아 있어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일 후'라면 선거일 다음날 자정부터 셈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이고 원심대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다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술버릇만 고치려 했는데…"

동거녀, 술주정 폭행 동거남 신고

법정서 태도 돌변 선처 눈물 호소

8일 오전 40대 중반의 남녀가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 법정에 들어섰다. 부부처럼 보였지만 이들 모두 각각의 사정으로 배우자와 헤어진 뒤 인연을 맺어 3년 전부터 동거하는 관계였다.

법정에 들어선 남자는 피고인석에, 여자는 증인석에 앉았다. 여자가 동거남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자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동거를 시작하면서 술을 줄이고 일용근로자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지난 9월 공사장에서 마신 술이 화근이 됐다. 귀가한 A씨는 동거녀를 때린 것은 물론 승용차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고, 동거녀는 '술주정'을 고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과거 폭행 전력까지 드러난 A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그러나 동거남을 고발했던 B씨는 법정에서 태도가 돌변했다. 결혼을 약속했다며 선처를 눈물로 호소한 것. 알고 보니 이들은 5년전 일용근로자와 직업소개소장으로 만나 3년전부터 사귀어온 사이였다. 더구나 암에 걸린 B씨를 A씨가 극진히 간호해 최근 완치 판정을 받는 등 정이 돈독했다. 사건이 커지자 B씨와 그녀의 딸, 동네주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사랑의 성탄 선물 포장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원들이 8일 오후 산타 복장을 한 채 광주시 북구 매곡동 적십자수련원 식당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대강 보상금 부정 수급한 30여명 입건

어업허가권을 빌리거나 어업생산량을 부풀린 주민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어업피해보상금이 허술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어업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신청해 받은 손모(45)씨 등 30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산강 주변 공유수면의 어업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어업생산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인당 11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모두 3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내수면 어업 선박용으로 배정된 면세유를 2007년부터 1인당 연간 1만5000ℓ에서 2만ℓ를 부정하게 받아 일부를 자신이 거래하던 주유소와 짜고 되팔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기관에 부정 사실을 통보해 전액 환수 조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벤츠 여검사' 변호사 영장 청구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지난 7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무고,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 이모(여·40)씨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1000만원짜리 수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친구 집 착각 남의 집 들어간 만취 대학생

쌍나팔

○…기말고사가 끝나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긴 대학생이 만취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의 집을 친구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경찰서행.

○…8일 광주광산경찰에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최모(25)씨는 지난 7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이모(42)씨의 집을 친구의 집으로 착각하고 두 차례나 찾아갔다는 것.

○…찾으려는 곳이 틀렸다는 이씨의 설명에도 재차 이씨의 집을 찾아간 최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이씨의 집 구조가 친구집과 너무 비슷해보여 들어가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